
개 회 사

(Opening Remarks)

2021. 09. 28.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남 기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입니다.

2021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마이클 크레이머(Michael Robert Kremer) 시카고대 교수님,
머티어스 코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님,
마르코스 폰테스(Marcos Pontes)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나,
현장에 직접 참석하시고 행사를 준비해주신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님(KDI),
허경욱 前 OECD 대표부 대사님,
페데리코 꾸에요 까밀로(Federico Cuello Camilo)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님,
그 외 KSP 수석고문님들과 국내·외 연사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2 KSP 성과 및 평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 현상은 경제개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에 있어서 친환경·녹색전환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메타버스 등 비대면 혁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등 우리의 삶과 생활, 산업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대주제를

“녹색·디지털 경제시대의 지식공유를 말하다”로 정한 것도 환경적 변화를 감안한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KSP도 이런 변화를 감안하여

업그레이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04년, 정식 제도로 자리잡은 이래, 그간의 KSP는 한국이 경험한 압축적인 개발경험 공유를 중심으로 **개도국과의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KSP는 양적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04년 단 2건(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이었던 프로젝트는

2020년 기준 총 4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그간 진행된 프로젝트는 총 87개국, 1,377개에 달합니다.

KSP는 양적 성장을 거치는 중에도
그간 개도국과의 협력과 개발경험 전수 노하우를
자체적으로 축적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디지털·그린에 중점을 둔 개도국의 혁신역량 강화 등
질적인 측면에서 업그레이드 노력도 강화해 왔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소개될 브라질의 과학기술혁신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사업과 케냐의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개발사업** 등은 협력국의 혁신역량을 질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는 대표적인 지식공유 사례입니다.

* 브라질 과학기술혁신 발전을 위한 자원조달, 역량강화, 정책개선 ('20/21 KSP)

** 콘자 디지털미디어시티 설립 지원('18/'19 KSP) → 콘텐츠 개발 후속연계('20/21 KSP)

3 지식공유의 중요성 및 KSP가 나아갈 방향

내외귀빈 여러분,

녹색·디지털 경제로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도입, 투자협력과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의
준비뿐만 아니라, **법·제도 정비, 공공역량 확보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준비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개도국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역량강화를 도모하기엔
비용과 시간이 오래 소요될 가능성이 큰 만큼,
KSP는 개도국 역량 강화에서 하드웨어적 측면의 양적 확대와
연계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 지원을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앞으로 KSP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Soft-Power, Sustainability, Synergy 등,
소위 “3S”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Soft-Power,
즉, 소프트파워 역량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KSP 자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년간 축적해온 한국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자문보고서’, 즉 모듈화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국의 발전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인력양성 등 소프트파워 역량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한연수 등 협력국과 한국간의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명시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노하우(implicit
knowledge) 전수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Sustainability,
즉,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보다 체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KSP를 통해 마련된 사업이 자문 수준을 넘어 실제 협력국
에서 구체적인 인프라 사업이나 후속 프로젝트로 지속적
으로 이어지도록 사업간 연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KSP 자문의 중장기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다년도 KSP 프로그램인 「KSP-Plus」를 신설하여
초기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구체적 사업 계획 작성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셋째, **Synergy**,

즉, 협력국 중심 자문을 확대하고, 국제기구,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원력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협력수요가 높은 **보건·그린·디지털 등 자문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협력국 사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협력국의 급박한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긴급요청사업 비중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다변화된 자문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공동컨설팅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전문가의 사업 제안도 폭넓게 수용하여 지식공유의 체계적인 협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 마무리 말씀

친애하는 참석자 여러분!

‘학습하는 조직’의 저자 피터 센게(Peter Senge) MIT 교수는 “진정한 지식공유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할 때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가 서로의 역량개발을 진심으로 원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앞으로 KSP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처음 4년간은 3cm 밖에 자라지 않다가
5년째 되는 순간 하루 30cm까지 자라고 6주 만에 15m
까지 자란다는 ‘모소대나무’(Moso bamboo)가 있는데,
그 폭발성장의 답은 뿌리로써 싹이 돋는 순간
뿌리에 축적한 영양분을 한꺼번에 공급받아
순식간에 성장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KSP 제도를 통해 협력국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짧은 기간 내 압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녹색·디지털화로 급변하는 세상에서
한국과 협력국이 KSP, 지식공유라는 수단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연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3일에 걸친 컨퍼런스를 통해
개발협력, 지식공유는 물론 KSP제도와 관련한
풍성한 식전과 통찰을 나누는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